

# 전남 귀농·귀어·귀촌 1번지 '우뚝'

2020년 3만3026가구 4만1861명  
전국 비중 귀농 18%·귀어 33% 1위  
전남도 발빠른 정책에 지원 성과

지난 2020년 한 해 3만3026가구 4만1861명이 전남으로 귀농·귀촌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전남이 인구 전담부서를 두고 귀농·귀어·귀촌에 매진한 결과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2020년 귀농·귀촌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남 귀농가구는 2347가구 3108명, 귀어 302가구 387명, 귀촌 3만377가구 3만8366명이었다. 이는 전국 대비 귀농가구는 18.8%, 귀어가구는 33.7%를 차지하는 규모다.

연령별로는 귀농·귀촌가구 중 30대 이하가 1만8274명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젊은 청년층이 청정지역 전남에서 친환경, 스마트농업 등 전남 농업의 경쟁력을 보고 귀농·귀촌을 많이 하고 있음을 증명해 준다.  
이는 전남도가 민선7기 들어 인구감소에 대비해 전국 최초로 인구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 수도권 등 대도시 예비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와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남에서 살아보기', '전남어촌탐구생활', '도시민, 전남 어민되다' 등의 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한 것이 주요했다. 분석이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귀농·귀촌인 유치를 꾸준히 확대하기 위해 수요 중심의 특색있는 귀농·귀촌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대도시 예비 귀농·귀촌인 유입을 위해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젝

트를 확대하고, 지난 3월 '함평군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2022년에는 해남군에 체류형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귀농·귀촌인의 안정 정착을 위한 창업자금(3억원 이내), 주택구입자금(7500만원 이내) 용자 지원을 하고, 임시 거주공간인 '귀농인의 집'(109개소)을 확대 운영한다. '귀농·귀촌 어울림마을' 10개소를 조성하고 기업·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작은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귀농·귀촌하기 안정맞춤인 전남을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시군 관계자·귀농·귀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전남을 찾는 귀농·귀촌인이 전남 농촌과 농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귀어귀촌센터, 도시민 500여명 상담



전남도는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 해남군 등과 함께 25일부터 3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21 귀어귀촌 박람회'에 참가해 수도권 도시민 500여 명을 상대로 귀어·귀촌 상담을 가졌다. 전남도는 이번 귀어귀촌 박람회에서 수도권 도시민과 직접 만나 전남의 귀어귀촌 정책과 프로그램을 알렸다.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는 상담을 마친 도시민들을 귀어·귀촌에 소개

장단기 귀어정착프로그램 등에 참여시켜 전남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 어촌으로 귀어한 도시민은 지난 2017년 285가구 418명에서 2018년 322가구 449명, 2019년 358가구 487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박람회에는 여수 안포·화태, 진도 신기, 영광 구수·대신 등 우수 어촌계도 함께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우리 바다 우리가 지킨다”...장흥 어업인 자정결의대회

득량만 통발어업인 60여명 참석  
무분별 어획·금어기 준수 등 다짐

전남도와 장흥군은 24일 장흥 장항항 일원에서 수산자원 보호와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업인 자정 결의대회를 했다. 최근 득량만 일원에서는 불법 어구를 이용한 무분별한 어획과 어구 무단투기 사례가 발생해 어획량이 줄고 바다가 황폐화하고 있다.



이제 따라 자원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어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장흥 어업인들이 스스로 바다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섰다. 장흥 통발어업인 60여 명과 전남도, 장흥군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불법어구를 사용하지 않고 금어기 준수를 다짐하는 결의대회와 함께, 장항항 주변 정화 활동을 펼쳤다.  
또한 선박 25척을 투입해 장흥 5개 읍면 해상에 침적된 폐통발과 어구를 수거하고, 지속적인 정화 활동을 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폐통발 안에 있던 낚지 100여 마리를 방류했다.  
(사진)

최정기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수산자원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깨끗한 바다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불법 어구를 사용하지 않고 금어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흥 어업인들처럼 어업인 스스로 자정노력을 통해 어촌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전남농기원 과수연구소 해남 통합이전 '속도'

삼산면 일대 25ha 부지 확보

도내 3개 시군에 분산된 전남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시험지를 해남으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19년 과수연구소 통합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해남, 완도, 나주 3개 시험지에 분산된 시설 관리와 연구 효율화를 위해 3개 시험지를 오는 2024년까지 해남으로 통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험지 통합지역으로 해남이 낙점된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과수 산업 연구에 해남이 적합하다는 판단 등이 반영됐다. 과수연구소 통합, 이

전 및 아열대 산업 지원에는 295억원이 투입된다. 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해남군 삼산면 일대 25ha 규모의 과수연구소 통합 부지를 확보한 데 이어, 지난 25일에는 해남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남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아열대 과수연구소와 산업 지원을 위한 과수연구소 통합 이전 업무협약'에는 박홍재 도 농업기술원장과 명현관 해남군수 등이 참여했다. 도 농업기술원과 해남군은 ▲과수연구소 통합 연구 인프라 및 아열대 농업인 교육 수행 기반 구축 ▲이전 부지 내외의 도로, 상하수도 등 SOC 구축 지원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역농업발전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형호 기자 khh@

## 전남도·농협, 국산김치 소비촉진 캠페인

전남도가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 추진, 전남산 김치 활성행사에 이어 '국산김치 사용 음식점 이용하는 날'도 운영, 국산김치 소비 촉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전남도가 국산김치 소비 촉진을 위해 도청 구내식당 휴무일인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을 '국산김치 사용 음식점 이용하는 날'로 정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난 25일 개최했다. 최근 수입산 김치 알뜰 절임 파문과 식중독균 검출 등으로 소비자 불신이 확산하면서 국산김치까지 소비가 위축되자 국산김치 소비촉진

대책과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의 조기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와 농협전남지역본부가 협력해 마련한 이번 캠페인은 도청, 농협, 도교육청 등 3개 공공기관에서 펼쳐졌다. 출근 시간에 맞춰 직원들에게 김치 홍보 물품과 떡을 나눠주며 행사 취지를 알리고,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현재 목표와 도청이 위치한 무안 남악 지역에는 52개 음식점이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 지정을 받았다. 전남도는 도 단위 공공기관을 대

상으로 '국산김치 사용 음식점 이용하는 날'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7월부터 일선 시군에서도 '국산김치 사용 음식점 이용하는 날'을 지정·운영하고,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에도 국산김치 소비촉진에 동참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국산김치의 소비촉진을 위해 이제는 소비자가 나서야 할 때”라며 “식당에서 국산김치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인 만큼 음식점 밖에서도 국산김치 사용 인증 업체임을 알리도록 표시제 지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중국시장 겨냥 맞춤형 수출교육

전남도는 코로나19 이후 중국 소비 및 유통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3일 목포 상그리아비치호텔에서 '2021년 중국 수출기업 맞춤형 실무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대중국 수출기업 해외 마케팅 담당자와 관계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 맞춤형으로 이뤄졌다. 중국시장 통상 전문가가 나서 통관 등 중국시장 진출전략과 사례, 수출기업 입장에서 중국 식품시장 인허가 제도라는 비관세 장벽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방법 등을 설명했다. 중국시장 온라인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활

용 수출전략도 소개했다.  
이상진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코로나19로 변화한 중국시장에 수출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교육과정을 꾸렸다”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도내 수출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장개척단 파견, 전시박람회 참가 등 대면 마케팅 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장개척단 활동을 온라인 화상상담으로 전환하고, 중국 현지 온라인물 입점 및 왕복 생방송 지원 등 수출기업의 비대면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 행복이벤트

**파워정기예탁금 I형, II형**

**12개월 연 1.7%** 세전 / 만기해지

**18개월 연 1.77%** 세전 / 만기해지

**2020년도 출자금 배당률**

2.97%

출자금은 예금보통예대상이 아니고 조합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2)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예탁금 및 저금은 신협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4)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합니다.
- 5)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6)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협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세공과금(22%)은 당 신협이 부담하며, 경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협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본점 266-4150 (광주 북구 문흥로 33)

매곡지점 572-4150 (북구 설죽로 315번길)

양산지점 573-4150 (북구 양산로 55)

침단지점 576-4150 (북구 침단지신로 91번길2-2)

운암지점 528-4150 (북구 북문대로 88)

동광주지점 264-4150 (북구 동문대로 187)

동림지점 513-4150 (북구 북문대로 233)

각화지점 263-4150 (북구 동문대로 283, 285)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신협중앙회 심의필 제2021-6호(2021.05.28), 유효기간 2021.12.31까지